

2/ 전후 일본에서 식민주의 비판 생성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와 스즈키
미치히코(鈴木道彦)의 경우*

요네타니 마사후미



1970년 6월 21일 미일안보조약 연장에 항의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하던 쓰루미 슌스케가 기동대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匠史) 도쿄외국어대학 종합국제학연구원 교수. 사회사상사·일본사상사 전공. 단독 저서로는 『아시아/日本』(岩波書店, 2006, 한국어판: 조은미 옮김, 『아시아/일본: 사이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이 있고 공저·편저에는 『1930年代のアジア社会論』(1930년대의 아시아 사회론, 社会評論社, 2010),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식민지/근대초극 연구회 기획,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尾崎秀実時評集』(오자키 호쓰미 시평집, 平凡社·東洋文庫, 2004), 『谷川雁セレクション』1·2(다니가와 간 셀렉션, 日本經濟評論社, 2009)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7.48>

1. 들어가며

식민지제국 일본의 붕괴, 식민지·점령지의 해방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실현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의 카이로 선언(1943)에서는 한국의 자유·독립과 타이완·만주 등의 중화민국으로의 반환이 명기되었고, 그것을 포츠담 선언(1945)이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합국에 대한 항복으로 식민지제국 일본이 붕괴하였기 때문에 제국 일본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는 ‘타율적’으로 이뤄졌다고 여겨진다. 영국, 프랑스와 달리, 제국 일본은 식민지의 자치·독립운동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제국’을 청산하는 심각한 갈등을 거치지 않은 채 식민지를 잃었다.¹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탈식민화, 탈제국화 과제와 마주하며 자기성찰을 할 기회를 갖지 않은 채 전후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일본인의 ‘제국 의식’을 온존시켰고, 일본이 스스로의 식민주의를 비판·검토할 기회는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²

더욱이 전후의 동아시아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남북 분단,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양안(兩岸)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본과 아시아의 화해, 국교 수립은 요원해졌다. 따라서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1972년에 중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되기까지 전후 일본에게는 아시아와 마주하며 과거를 성찰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전후 일본에 있어 아시아에 대한 가해를 성찰하는 사상이 본격적으로

1 미타니 다이치로(三谷太一郎)는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第8巻 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에게 있어 탈식민화란 무엇이었는가. 패전의 결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타율적으로 전후의 영토를 결정받은 일본에게 있어 탈식민화는 자명한 소여였다. 식민지 제국 일본은 패전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이며,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 본국은 탈식민화 그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었다. 탈식민화는 그것 자체로서는 타국의 문제이며, 일본에게 있어 스스로의 심각한 체험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해도 좋다.” 三谷太一郎, 「まえがき」, 大江志乃夫 外 編,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第8巻 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 岩波書店, 1993, vii~viii쪽.

2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는 “일본의 경우에는 탈식민화가 군사적 붕괴와 더불어 타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본국 국민의 자의식에 트라우마틱한 영향을 남기는 일은 적었다. 그것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의 이전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반면 제국의식은 강력하게 남게 되었다.”라고 논한다. 荒井信一, 『戦争責任論』, 岩波書店, 1995; 岩波現代文庫版, 2005, 231쪽.

싹트고, 일본인의 전쟁관과 아시아 인식이 변화해 가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전후 초기에는 공습과 원폭 투하 등의 전쟁 경험이 강하게 의식되었고, 아시아에 대한 가해 의식은 희박하였다. 그러나 차츰 아시아에 대한 가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다.³

이 문제는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등의 말로 논의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잔존하는 ‘제국 의식’이 비판을 받게 된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에는 국민국가의 역사를 넘어 식민지제국의 뒤엉킨 역사를 그린 ‘제국사’(Imperial History) 연구가 본격화하였다.⁴

그리고 노예제와 식민지배를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로써 추궁하는 더반 회의(반인종주의·차별철폐세계회의, 2001년 8월 말~9월) 개최를 계기로 ‘식민지배 책임’(혹은 식민 책임)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다.⁵

전쟁책임과는 구별하며 식민지배 책임이 논의된 것은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근년의 일이다. 그러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아시아에 대한 가해 책임을 묻는 논의는 전후 일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중요한 논점을 제시한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를 다룸으로써 식민주의 비판이 생성되어 가는 경위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선·한국에 대한 식민주의, 가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주로 한국사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지만,⁶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는

3 전후 50년에 걸친 일본인의 전쟁관 변천을 검토한 요시다 유타카(吉田裕)의 『日本人の戦争観』(岩波書店, 1995)은 베트남 반전운동과 중일국교회복문제가 “옛 전쟁의 침략성과 가해성을 직시하고자 하는 전쟁 인식의 조류”가 확대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논한다.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岩波現代文庫版, 2005, 144~149쪽.

4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全8巻, 岩波書店, 1992~1993)는 일본에 관한 ‘제국사’(帝國史) 연구가 본격화되는 획기적 시리즈이다. 그 후 駒込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1996; 歴史学研究会 編, 『帝国への新たな視座』, 青木書店, 2005 등이 간행되었다.

5 板垣竜太, 「植民地支配責任を定立するために」, 岩崎稔 外 編, 『継続する植民地主義』, 青弓社, 2005; 板垣竜太, 「脱冷戦と植民地支配責任の追及」, 金富子·中野敏男 編, 『歴史と責任』, 青弓社, 2008; 永原陽子 編, 『植民地責任』論: 脱植民地化の比較史』, 青木書店, 2009.

6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일본조선연구소(1961년 발족) 멤버들은 전진(戰前) 이래의 한국사 연구의 틀(정체사관, 타율성사관)을 극복하는 내재적 발전의 역사학을 담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주의, 동시대의 한일관계를 논하며 일조(日朝)우호운동에 관여하였다. 板垣竜太, 「日韓会谈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日本朝鮮研究所の植民地主義論を中心に」, 『思想』 1029号(特集 「韓国併合」100年を問う), 岩波書店, 2010. 1.; 韓昇憲, 「東アジア冷戦と植民地主義批

급진적인 자유주의, 혹은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사상·운동을 전개한 철학자, 문학자이다. 그들은 알제리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큰 시사점을 얻어, 아시아·아프리카 특히 한국에 대한 식민주의, 가해 문제를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생성하는 문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쓰루미 슌스케: 베트남 전쟁과 한국에 대한 가해 자각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1922~2015)는 잡지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 편집에 오랫동안 관여하며 재야의 자립적 논의 활성화를 지향하였으며 시민운동에서도 활약하였다. 전전에 미국 유학생생활을 하며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배운 쓰루미는 지식인에 의한 체계적인 아카데미즘 지식 쌓기보다는 시민·대중의 의식과 문화에 내재하면서 실천적인 지(知)를 쌓아 올리는 일에 진력하였다.⁷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하버드대학 철학과 재학 중이던 아나키스트 쓰루미 슌스케는 FBI에 체포되었다. 그는 구류 중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에 관한 졸업논문을 완성하였고, 졸업을 인정받은 후 미일교환선을 타고 1942년 일본에 귀국한다. 그리고 전후 점령을 거쳐 미일 관계가 강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미일 정부의 공범 관계와 아시아에 대한 가해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한 관심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명확해져 가지만, 실은 그 이전부터 아시아에 대한 전쟁 책임의 자각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였다.

쓰루미는 「지식인의 전쟁책임」(知識人の戦争責任, 1956)에서 만주사변에서

判: 日本朝鮮研究所の日朝友好運動論をめぐる対立を中心に, 『アジア太平洋研究』 13号, 成蹊大学, 2020. 12. 등 참조.

7 쓰루미 슌스케의 전기(傳記)로는 黒川創, 『鶴見俊輔伝』, 新潮社, 2018 등이 있다. 쓰루미는 1960년에 신안보조약 강행 체결에 항의하며 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学)을 사직하였고, 1970년에는 대학분쟁에서의 기동대 도입에 항의하며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学)을 사직하였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쟁을 ‘15년 전쟁’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전쟁책임 논의가 점령군에 의한 전쟁재판 등에 의해 주도/대행되어 온 것에 대해 일본인이 직접 주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전후 초기에 전쟁 말기의 피해 경험과 미국에 대한 패배가 강하게 의식되고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책임의식이 희박하였던 것에 대해, 만주사변 이래의 중국·아시아에 대한 일련의 침략전쟁을 자각하고 가해의 책임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역사상으로서 ‘15년 전쟁’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쓰루미의 이 논고는 그중 가장 초기의 사례였다.

그 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전쟁책임에 대하여」(戦争責任について, 1960)를 통해 “만주사변이 전쟁의 발단이고 그 이후 전쟁이 이어졌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적어도 전쟁책임을 문제로 삼는 입장에서는 오늘날 거의 공인받고 있다. ‘15년 전쟁’이라는 규정은 상당히 숙성되었다.”라고 한 후에, 주체적으로 책임의식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침략의 아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논하였다.⁹

이처럼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가해 의식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차츰 대두되었지만, 그것이 동시대의 과제와 결부되어 현재화(顕在化)한 것은 베평련의 반전운동이었다. 베평련은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북폭’(北爆)이 본격화한 1965년에 각지의 시민이 자주적으로 수평하게 연계하는 반전운동으로서 발족하였다.¹⁰

그 호소인[呼びかけ人] 중 한 명인 오다 마코토(小田実)는 아시아에 대한

- 8 鶴見俊輔, 「知識人の戦争責任」, 『中央公論』, 1956년 1月号, 『折衷主義の立場』(筑摩書房, 1961) 수록. 이러한 관심은 지식인의 ‘전향’을 내재적으로 고찰하는 공동연구와 관련되며 思想の科学研究会 編, 『共同研究 転向』(全3卷), 平凡社, 1959~1962으로 결실을 맺었다.
- 9 竹内好, 「戦争責任について」, 『現代の発見 第3卷 戦争責任』, 春秋社, 1960, 10~11, 14쪽(『竹内好評論集 第3卷 日本とアジア』 재수록, 筑摩書房, 1966; ちくま学芸文庫版, 1993).
- 10 小熊英二, 「第15章 ベ平連」, 『1968(下)一叛乱の終焉とその遺産』, 新曜社, 2009; 平井一臣, 『ベ平連とその時代』, 有志舎, 2020 등. 근년에는 교토, 고베,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키나와 등 각지의 지역 베평련에 관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베의 베평련에 대해서는 黒川伊織, 「ベトナム反戦から内なるアジアへ: ベ平連こうべの軌跡」, 出原政雄 編, 『戦後日本思想と知識人の役割』, 法律文化社, 2015 등 일련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가해자의 입장을 자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 반전운동을 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반전운동가가 모여 개최한 ‘베트남에 평화를! 일미시민회의’(1966년 8월, 도쿄)에서, 오다 마코토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은 가해자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국인의 반전운동, 징병 거부와 연계하면서 반전운동의 국제연대 추진을 호소하였던 것이다.¹¹

이 같은 관심은 베평련의 활동 안에 공유되었고, 쓰루미 슌스케는 ‘반전과 변혁에 관한 국제회의’(1968년 8월, 교토)에서, ‘시민적 불복종의 국제적 연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거기서 쓰루미 슌스케는 베트남 전쟁을 추진하는 미국 정부와 그것을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제휴관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전에 용단폭격을 하였고 또 원자폭탄 공격으로 많은 일본 시민을 죽인 미국의 대장에게, 과거의 전쟁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내각은 훈일등(勳一等)의 훈장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본래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의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협력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¹²

여기서 언급된 것은 미군의 전략폭격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에 대한 서훈(敍勳)이다. 르메이는 1945년 3월 10일의 도쿄대공습을 지휘하였고, 또 8월의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에 대한 원폭 투하를 지휘하였다. 또한, 냉전하의 한국전쟁에서도 대규모 공중 폭격을 지휘

11 小田実, 「平和への具体的提言」, 小田実 編, 『市民運動とは何か: ベ平連の思想』, 徳間書店, 1968. 초출은 『文藝』 1966년 10月号; 小田実, 『平和をつくる原理』再録, 講談社, 1966. 이 일미시민회의에서는 ‘일미반전시민조약’이 체결되었다. 道場親信, 「ポスト・ベトナム戦争期におけるアジア連帯運動: 「内なるアジア」と「アジアの中の日本」の間で」,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 8卷 ベトナム戦争の時代 1960~1975年』, 岩波書店, 2011은 베평련의 활동. 특히 오다 마코토의 강연 ‘평화에의 구체적 제언’(平和への具体的提言)이 아시아에 대한 가해성 자각, 피해와 가해의 중층성 인식을 제기하였고,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12 鶴見俊輔, 「市民的不服従の国際的連帯」, 小田実・鶴見俊輔 編, 『反戦と変革: 抵抗と平和への提言』, 学芸書房, 1968, 29쪽.

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북폭(北爆)에도 관여한 바 있다. 그러나 1964년 일본 정부는 르메이에게 훈장을 수여하였다. 항공자위대 육성에 협력하고, 미일 안보체제 강화에 공헌하였기 때문이다.¹³ 전략폭격에 의한 일반 시민 대량 살육과 전쟁범죄는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계속되었고, 이제는 미일 정부의 공범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간의 제휴에 의한 침략과 가해에 대해 쓰루미 슌스케는 개인이 불복종을 통해 연대하고 저항해 나가는 국제연대를 호소하였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은 탈주병 지원운동이었다. 징병이 되어 베트남에 파견돼 가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미군 병사의 탈주가 시작되면서, 베평련은 지하조직 JATEC(반전탈주미군병원조일본기술위원회)를 통해 탈주병을 지원하였다.¹⁴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67년 10월 미군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 모함 인트리피드에서 4명의 미군 병사가 탈주하여 망명을 요구한 일이었다. '인트리피드(Intrepid)의 4인'이라 불렀던 그들은 베평련·JATEC의 지원을 받아 소련을 경유하여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망명하였다.

베평련·JATEC는 그 이후에도 탈주병 지원활동을 이어 갔는데, 탈주병 중에는 미국 체재 중에 징병된 일본인 시미즈 데쓰오(清水徹雄)와 한국 국적의 미국 시민 김진수(金鎭洙, Kenneth C. Griggs)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에서 탈주하여 일본으로의 망명을 요구한 김동희(金東希)가 있었다.¹⁵

- 13 한편 나고야, 도쿄, 오사카 등 각지의 공습 피해자·유족은 일본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제소하였으나, 그 호소는 '전쟁피해수인론'(戰爭被害受忍論)에 의해 기각되었다. 전쟁 피해는 폭넓게 국민이 참고 견디며 수인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조리한 법리에 의한 것이다. 이 법리는 제외재산의 보상문제에 관한 1968년 11월의 최고재판소 판결로 제시되었으며, 이후에는 그것이 관례가 되어 공습 피해자·유족의 제소에도 적용되었다. 栗原俊雄, 『東京大空襲の戦後史』, 岩波新書, 2022 참조. 일본 정부는 도쿄대공습 등 전략폭격을 지휘한 커티스 르메이를 서훈하였지만, 공습 피해자·유족의 보상 요구는 계속하여 부인하였던 것이다.
- 14 小田実 外 編, 『脱走兵の思想: 国家と軍隊への反逆』, 太平出版社, 1969; 関谷滋·坂元良江 編, 『となり脱走兵がいた時代: ジャック, ある市民運動の記録』, 思想の科学社, 1998; 阿奈井文彦, 『ベ平連と脱走米兵』, 文春新書, 2000; 吉岡忍·鶴見俊輔, 『脱走の話: ベトナム戦争といま』, 編集グループ Sure, 2007 등.
- 15 権赫泰, 「国境内で「脱/国境」を想像する方法: 日本のベトナム反戦運動と脱營兵士」, 『平和なき平和主義: 戦後日本の思想と運動』, 法政大学出版局, 2016은 미국인 병사, 시미즈 데쓰오, 김진수, 김동희의 처우 차이를 다루며 평화헌법의 이념과 미일안보체제, 출입국관리제도 등의 현실이 모순을 품고 있으며 탈주병들은 국적과 미일지위협정 등의 법적 제약을 받고 있던 점을 논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김동희 구원운동이 쓰루미 슌스케가 한국에 대한 가해 문제를 성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동희는 1935년 제주 출생으로 일본에 형들이 있어 여러 번 일본에 밀항해 생활하였고,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구류와 강제송환을 경험한 바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1965년 베트남 파병을 거부하며 탈주하였고 세 번째 밀항을 시도한 것이다. 쓰시마(對馬)에 상륙하여 체포된 김동희는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 있다가 출소 후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보내졌고 한국으로의 강제퇴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김동희는 1967년 3월, 강제퇴거 취소와 일본 망명을 호소한다.

이에 대해 쓰루미 슌스케, 이누마 지로(飯沼二郎) 외 교토 베평련 멤버가 ‘교토 김동희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지원운동을 펼쳤다.¹⁶

김동희의 베트남 파병 거부에는 제주4·3사건(1948)과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나오는 한국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있었다. 김동희는 “제주도를 피 바다로 만”든 한국군에 대해, “윤간능욕한 그 어린 소녀를 내버려 두고 간 군대, 불도저로 송장을 짓눌러 으깬 군대, 자기 내장을 포승줄처럼 질질 끌며 어미를 부르는 청년을 죽인 군대”라 기록하며 강한 기피 반응을 보였다.¹⁷ 그리고 1967년 1월에 작성한 「망명청원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동포가 죽음을 당하고 조국이 파괴되는 전쟁의 잔학성을 몸소 체험한 저는 지금 또다시 베트남에서 초연(硝煙)에 휩싸여 인간이 아무 이 유도 없이 서로 죽이고 국토를 파괴하며 피로 물들이는 것에 강한 반발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월남 파견병이 되라는 명령은 등줄기가 오싹하고 신물이 날 것처럼 싫었습니다.¹⁸

16 塩沢由典·片見富士夫 編, 『權利としての亡命を! 金東希問題を考える』, 京都金東希を守る会, 1968. 7.

17 金東希, 「わたしの記録」, 塩沢由典·片見富士夫 編, 『權利としての亡命を!』, 35쪽.

18 金東希, 「亡命願」, 塩沢由典·片見富士夫 編, 『權利としての亡命を!』, 26쪽.

이처럼 한국군과 베트남 파병에 대해 강한 기피 의식을 품고 있던 김동희는 헌법 9조와 평화중의를 내건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미국에 협력하고 있었기에 김동희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으로 강제송환을 원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총살 등의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교토 김동희를 지키는 모임’ 등 각지의 시민운동이 강하게 항의한 결과, 한국으로의 강제송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본으로의 망명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김동희는 일본 망명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차선의 선택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출국을 희망하였다. 그는 결국 1968년 1월 북으로의 송환을 언도받았고, 요코하마항(横浜港)에서 소련의 선박으로 출국하여 나훗카(Nakhodka)를 경유하여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일본으로의 밀항자, 망명희망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외적인 자세를 취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 있던 것은 해방 전의 식민주의와 차별이 전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전의 조선인은 일본으로의 도항과 왕래를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국경을 걸친 생활권”을 살아왔다.¹⁹ 그러나 패전에 의한 식민제국의 해체 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경이 그어졌고,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잃었으며 배외적인 출입국 관리에 의한 통제를 받아 왔다. 오무라 수용소가 개설된 것은 1950년이고 출입국관리령이 공포된 것은 1951년인데, 이는 한국전쟁의 전화를 피해 일본에 밀항하는 피난민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출입국 관리는 점령군과 일본 정부의 협력에 의해 한국전쟁기에 확립되었는데, 그 모순이 집중된 장소가 오무라 수용소였고, 그 대부분의 수용자가 한국인이었다.²⁰

19 梶村秀樹, 「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思想』 734号, 岩波書店, 1985. 8.; 杉原達, 「濟州島から猪飼野へ: 在日朝鮮人の渡航過程」, 『越境する民: 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新幹社, 1998.

20 玄武岩, 「密航・大村収容所・濟州島: 大阪と濟州島をむす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現代思想』, 青土社, 2007. 6.; 玄武岩, 『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 メディア・移動の歴史と空間』収録, 北海道大学出版会, 2013; 高谷幸, 『追放と抵抗のポリテイクス: 戦後日本の境界と非正規移民』, ナカニシヤ出版, 2017.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후에는 한국의 군사정권과 일본 정부 간에 경제협력과 더불어 출입국관리와 강제송환을 둘러싼 연계가 확립되어 간다. 김동희의 탈주·밀항은 그러한 한일의 협력체제가 시작되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는 1965년의 일이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체제와 오무라 수용소의 인권침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임석균(任錫均)이었다.

1929년 도쿄에서 태어난 임석균은 태평양전쟁기에 소개(疏開)하여 조선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 학생운동,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하였고, 여수·순천사건과 빨치산 투쟁에 관계하다 1949년에 검거되었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탈주하여 일본으로 밀항한다. 그 후 일본에서 십수 년 생활하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딸도 있었지만, 1965년에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오무라 수용소를 거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듬해인 1966년, 재차 도망쳐 일본으로 밀항하지만 체포되었고,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복역한 후 1967년에 오무라 수용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그리고 신장 결핵 중증화로 인해 1968년 3월에 가석방된다.²¹

실은 오무라 수용소에 있던 김동희가 1967년에 쓰루미 슌스케, 교토 베평원과 편지 왕래를 하고 수기를 쓸 때, 편지를 대필하고 수기를 번역한 것이 당시 오무라 수용소에 있던 임석균이었다.²² 임석균은 또 가석방 후에 박정공(朴正功)이라는 펜네임으로 저서 『오무라 수용소』 등을 집필하였고, 일본의 출입국관리 체제와 오무라 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를 강하게 비판

21 임석균의 경력에 대해서는 임석균 씨를 지지하는 모임(任錫均氏を支持する会, 이누마 지로), 「緊急ルポ 任錫均氏, 神戸入管に強制収容」, 『ベ平連ニュース』 48号, 1969. 9. 1.; 飯沼二郎, 「ひとりの悲劇的反逆者」, 『キリスト者と市民運動』, 未来社, 1970, 초출은 『日本読書新聞』 1969. 9. 22. 등 참조.

22 김동희의 편지는 일부가 「大村収容所からの手紙」(『展望』 1968년 2월) 등에 게재된 후 『權利としての亡命を!』에 재수록되었다. 그것을 임석균이 대필한 사실은 旗田巍·鶴見俊輔, 「(対談) 雑誌『朝鮮人』の二十一年」, 旗田巍, 『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 大和書房, 1992 등에 언급되어 있다(122쪽). 또 『權利としての亡命を!』에 수록된 김동희의 편지는 쓰루미 슌스케의 의뢰로 오무라 수용소 내에서 쓰여졌고, 『展望』 1969년 2·3·4월호에도 게재되었는데, 번역자로 되어 있는 김건주(金建柱) 역시 임석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하였다.²³

임석균은 오무라 수용소 내에서 김동희와 쓰루미 슌스케 외 교토 베평련의 편지 왕래를 중개하였고, 1968년 봄 가석방이 되고 나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화의 가해와 전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박해, 밀항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후의 박정희 군사정권과의 연계,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이 집약된 '일본의 아우슈비츠'로서 오무라 수용소를 고발하였던 것이다.

1969년 봄, 출입국관리령을 강화·개악(改惡)하는 출입국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출입국관리법안반대운동과 오무라 수용소 해체투쟁이 베평련, 신좌익운동, 학생운동 등에 의해 본격화된다.²⁴ 그때 오무라 수용소 내의 인권침해·박해의 실태를 몸소 숙지한 임석균은 투쟁집회 등에서 열변을 토하며 투쟁을 촉발하는 선동자(agitator)가 되었다.

단, 가석방 중인 임석균은 고베(神戸)의 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고베입국관리사무소에 정기 방문하여 가석방 기간 갱신을 신청해야만 하였다. 가석방 기간이 끝길 경우에는 오무라 수용소에 다시 수용되어 한국에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누마 지로, 쓰루마 슌스케 외 교토 베평련 멤버는 '임석균 씨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어 임석균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69년 7월에 잡지 『조선인: 오무라 수용소를 폐지하기 위하여』를 창간한다.²⁵

- 23 朴正功, 「朝鮮人密航者の歴史と現実」, 『現代の眼』, 1969년 5月号; 井上清 外, 「(座談會) 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自画像」, 『現代の眼』, 1969년 8月号; 朴正功, 『大村収容所』, 京都大学出版会, 1969 등. 또, 지동신(池東信)이라는 이름으로 「大村収容所を告発する」(『思想の科学』, 1969년 6月号)도 썼다. 박정공, 김건주, 지동신 등이 임석균의 펜네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飯沼二郎, 「任錫均氏の政治亡命を! : 日朝人民の眞の連帯のために」, 『キリスト者と市民運動』; 倉田令二郎, 「朝鮮人差別の基本構造: 任錫均氏事件におもう」, 『朝日ジャーナル』 1969년 9월 14일호; 倉田令二郎, 「朝鮮人問題: 任錫均の場合」, 『現代の眼』 1969년 10月号 등 참조. 임석균이 잡지 『현대의 눈』(現代の眼)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서는 秋山道宏 外, 「社会運動とメディアの連環: 1960~70年代の新左翼系雑誌と編集者に着目して」, 大野光明 外 編, 『社会運動史研究 3 メディアがひらく運動史』, 新曜社, 2021 참조.
- 24 盧恩明, 「べ平連の反「入管体制」運動」, 『政治研究』 57号, 九州大学, 2010. 3. 등 참조. 베평련은 1969년 3월 31일에 오무라 수용소 앞에서 시위를 펼쳤고 쓰루미 슌스케와 오다 마코토도 참가하였다.
- 25 잡지 『朝鮮人: 大村収容所を廃止するために』의 창간호(1969년 7월, 朝鮮人社)는 '임석균 씨를 지지

이 잡지 『조선인』의 활동은 한국인에 대한 배외적인 출입국관리 체제를 비판하고 오무라 수용소 폐지 요구를 진력하는 것으로, 전전부터 전후로 이어지는 한국에 대한 가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박해에 정면으로 마주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한일연대운동과 재일조선인의 권리획득운동, 그리고 재일조선인문학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반전운동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가해 문제를 논한 쓰루미 슌스케와 이누마 지로(飯沼二郎) 등 교토 베평련 멤버는 탈주병 김동희와 임석균과의 교섭·대화를 거치며, 전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사상·운동을 엮어 내었다.²⁶

그 과정에서 쓰루미 슌스케는 전술한 ‘반전과 변혁에 관한 국제회의’(1968년 8월, 교토) 강연(‘시민적 불복종의 국제적 연대’)을 통해 “일본의 국가가 조선인에게 지난 60년간 가해 온 박해와 차별”을 생각하지 않으면 미국의 흑인 문제 이해를 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²⁷ 여기서 말하는 60년간이란 1910년 한국병합 전후부터 1970년 전후에 걸쳐 일본이 한국, 그리고 재일조선인에게 식민주의적인 가해를 가해 온 기간이다.

쓰루미 슌스케는 이 강연과 거의 동시기에 편저 『평화의 사상』(1968년 10월) 해설에서, 특공대원으로 전사한 학도병이 남긴 편지를 모아 베스트셀

하는 모임’의 편집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직후에 이 모임은 해산하였고, 2호(1969년 12월)부터 20호(1981년 10월)까지 이누마 지로의 개인 편집으로 발행이 이어졌다. 21호(1983년 3월)부터는 쓰루미 슌스케의 개인 편집으로 이행되었고, 27호(1991년 5월)까지 발행되었다. 오무라 수용소에 조선인 수용자가 거의 없어지고, ‘재일조선인의 강제송환 장치’로서의 역할이 이미 없어졌음을 확인하며 잡지 『朝鮮人』은 중단되었다. 飯沼二郎, 「雑誌『朝鮮人』を出しつづけて」, 『季刊三千里』 25号, 1981. 2.; 鶴見俊輔, 「雑誌『朝鮮人』の終わりに」, 『思想の科学』 1992年 12月号; 姜在彦·小野誠之·関谷滋·黒川創, 『鶴見俊輔さんの仕事4 雑誌『朝鮮人』とその周辺』, 編集グループSURE, 2017 등 참조.

26 후에 쓰루미 슌스케는 “베트남 반전은 미국에 비판의 화살이 향해 있었는데, 그 비판을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로 향하게 한 것이 김동희와 임석균이에요.”(『対談』雑誌『朝鮮人』の二十一年, 旗田巍, 『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 128쪽), “초기 베평련에게 있어 베트남, 미국, 일본 이 세 나라만이 시야에 있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협력하며 베트남에 파병하고, 그 병사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탁하며 밀입국하여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기까지 베평련은 오무라 수용소의 존재를 몰랐다. 한국에서 탈주병이 나올 것을 고려에 넣는 일도 없었다”(鶴見俊輔, 「雑誌『朝鮮人』の終わりに」, 71쪽)라고 자성을 담아 회상하고 있다.

27 鶴見俊輔, 「市民的不服従の國際的連帶」, 36쪽.

러가 된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きけわだつみのこえ)을 굳이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 학도병의 편지에는 평화에 대한 바람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였던 시기에조차 일본이 조선, 타이완, 중국에게 이어 온 부당한 지배의 자각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학도병을 뒷받침한 평화 이념이 동적인 것이 되지 못한 원인을 보여 준다. 이 15년 전쟁 이전의 이른바 평화가 얼마만큼의 굴종과 굽주림, 빈곤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요해 왔는지, 또 국내의 사람들에게 강요해 왔는지, 거기에서 그들의 국가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국가에 봉사하는 자신의 헌신적 자세를 미화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을 터이다.²⁸

전쟁에 대한 의문·회의를 품으면서도 전사한 학도병의 편지를 모은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의 출판은 국가에 의해 죽음을 강요당한 피해 경험을 토대로 평화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쓰루미 슌스케는 ‘15년 전쟁’ 이전의 평시에도 이어지고 있던 식민지배의 가해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체험을 말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전진·전시·전후로 이어지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쓰루미 슌스케의 식민주의 비판은 베트남 반전과 아시아에 대한 가해를 논하는 가운데, 1967년부터 69년에 걸쳐 탈주병 김동희, 그리고 오무라 수용소에서 가석방된 임석균과의 교섭·대화에 촉발되면서 생성되어 갔던 것이다.

28 鶴見俊輔, 「解説 平和の思想」, 鶴見俊輔 編, 『戦後日本思想大系4 平和の思想』, 筑摩書房, 1968. 10., 8쪽; 福岡良明, 「『順法』への懐疑と戦争体験: 「カウンター・クライム」の思想」, 『現代思想』 2015년 10월臨時増刊号(「総特集 鶴見俊輔」)는 가해책임과 식민주의 문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이 문장에 주목하고 있다.

3. 스즈키 미치히코: 알제리 전쟁과 일본인의 민족책임론

프랑스 문학자 스즈키 미치히코(鈴木道彦, 1929~)는 프랑스 유학 중에 알제리 전쟁에 직면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 및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민족책임론' 논객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즈 파농(Frantz Fanon, 1925~1961)을 논하고,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이진우(李珍宇)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김희로(金嬉老)의 재판투쟁을 지원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민족책임론과 식민주의 비판을 둘러싼 논의의 생성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²⁹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던 스즈키 미치히코는 프루스트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1954~1958), 그가 프랑스에 건너간 직후인 1954년 11월에 알제리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1962년의 화평협정과 독립 달성까지 7년 반 동안 이어진 알제리 전쟁에서는 독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FNL(알제리민족해방전선)의 게릴라전에 의한 무장저항을 진압하는 프랑스크군의 학살과 고문이 반복되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프랑스의 여론은 분열되었고, 지식인과 학생 사이에서 프랑스의 식민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FNL의 독립투쟁에 공명하여 연대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알제리 전쟁하에서 스즈키 미치히코는 프랑스인, 알제리인, 튀니지인 학생들과 교우하였고, 농밀한 논의를 거치며 프랑스 그리고 서양의 식민주의를 날카롭게 되문게 되었다. 프랑스인 학생들은 징병이 되어 알제리로 파병되는 경우, 본의가 아니더라도 알제리인을 죽이는 측에 싫든 좋든 서게

29 스즈키 미치히코의 민족책임론, 프랑즈 파농론과 폭력론, 이진우론, 김희로재판지원운동, 알제리 전쟁과 5월 혁명을 둘러싼 1960년의 논고는 『안가ージェUMAN의思想』(晶文社, 1969), 『政治暴力と想像力』(現代評論社, 1970) 이 두 권의 평론집에 실려 있고 근년에는 그 일부가 『私の1968年』(閏月社, 2018)으로 간행되었다. 또 프랑스 유학에 대한 회상 『異郷の季節』(みすず書房, 1986), 민족책임론을 제시한 1960년대를 되돌아보는 회상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集英社新書, 2007), 강연집 『余白の声 文学・サルトル・在日: 鈴木道彦講演集』(閏月社, 2018)이 간행되었다. 岩瀬みゆき, 「他者への想像力, 暴力という希望: 鈴木道彦著『アンガージェUMANの思想』『政治暴力と想像力』を読む」, 『Quadrante』 20号, 東京外国語大学 海外事情研究所, 2018은 1960년대에 간행된 두 권의 평론집에 대한 서평논문의 형식으로 스즈키 미치히코의 식민주의 비판과 민족책임론의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을 거부하는 이들, 프랑스군에서 탈주하는 병사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알제리의 독립전쟁을 지지하고, 탄압·학살하는 프랑스군에 항의하며 알제리인과 연대해 지원하는 사상·운동이 대두하였다.

스즈키 미치히코가 정치에 참가하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지식인으로서 주목한 사르트르는, 1956년 발표한 「식민주의는 하나의 체제다」에서 “좋은 식민자가 있고, 그 외에 성질이 나쁜 식민자가 있다고 하는 식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식민자가 있다, 단지 그뿐이다”라고 하였다.³⁰ 식민주의는 하나의 체제이고, 개개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식민자(colon) 측인 프랑스인이라는 점 자체로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논한 것이다.

스즈키 미치히코에게 있어 알제리인의 독립투쟁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장송 기관’의 활동은 충격적인 자극제가 아닐 수 없었다. 젊은 논객으로 활약하던 철학자 장송(Francis Jeanson)은 FNL의 잠행간부를 은닉·이동시켰으며, 자금을 원조하고 무기를 운반하는 비밀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또, 프랑스군으로부터의 탈주병을 은밀히 지원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그 활동이 드러나며 1960년에 일제히 검거되었지만, 장송은 검거를 피해 잠행하며 활동을 지속하였다.³¹

그리고 1960년 가을, 체포된 ‘장송 기관’ 멤버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지식인들이 집단으로 ‘알제리 전쟁에서 불복종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모리스 블랑쇼, 사르트르, 보부아르, 앙드레 브르통, 마르그리트 뒤라스, 에두아르 글리상 등 121명이 서명하여 발표한 통칭 ‘121인 선언’이다.³²

이 선언은 독립을 요구하는 알제리인의 투쟁을 “자유로운 이들의 대의”

30ジャン・ポール・サルトル, 「植民地主義は一つの体制である」, 『植民地の問題』, 人文書院, 2000, 33쪽. 사르트르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鈴木道彦, 「サルトルとアンガージュマン文学」, 『思想』 491号, 1965.5 등을 참조. 스즈키의 논고는 『アンガージュマンの思想』에도 수록되어 있다.

31프랑스시 장송(1922~2009)은 프랑즈 파농의 제1작인 『검은 피부, 하얀 가면』(1952)에 서문을 썼다.

32「アルジェリア戦争における不服従の権利にかんする宣言」, モーリス・ブランショ, 『ブランショ政治論集』, 月曜社, 2005.

라고 긍정하였고, 알제리인을 학살·고문하는 프랑스군에 저항하여 프랑스인이 징병을 거부하는 것, 알제리인의 전투원을 비호하여 원조하는 활동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것이었다. ‘장송 기관’에 의한 자금원조와 무기 운반은 프랑스군과 싸우는 무력투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실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121인 선언’은 그 활동을 정당한 것으로 지지하였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1958년에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하였는데, 알제리공화국 임시정부(1958년 9월)가 수립되고 도쿄 아자부(麻布)에 극동 대표부가 설치되자 그 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며 교류하였다. 그리고 알제리 정세에 관한 강연과 논고, 번역을 발표하며 독립투쟁을 지원하였다.

그러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장송 기관’의 재판과 ‘121인 선언’이 계기가 되어 스즈키 미치히코는 식민지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민족책임’을 논하기 시작한다. 「불복종 권리의 기록」(1962년 11월)에서는 ‘장송 기관’의 활동과 재판과 관련한 자료군, 특히 마스페로사 간행 『장송 기관의 재판』(1961)을 언급하며 ‘민족의 책임’을 논한다. 그리고 알베르 멤미(Albert Memmi)가 논하는 식민자 측 민족의 “집단적 책임”³³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멤미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책임, 집단의 책임, 구체적으로는 알제리 전쟁에 있어 프랑스인의 전쟁책임이다. 이 문제제기에 가장 빠르고 래디컬한 응답을 시도한 것이 철학자 장송과 사르트르이며, 또 실제로 대량학살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한 출정병사들이다...³⁴

이처럼 스즈키 미치히코는 알제리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프랑스인이 갖는 민족책임을 논한 후에, 진행 중이던 한일 교섭을 언급하며 “일본인의 책임의식이 사상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말

33 アルベール・メンミ, 『植民地: その心理的風土』(원제는 「植民者の肖像と被植民者の肖像」), 三一書房, 1959(원저는 1957), 50쪽. 알베르 멤미(1920~2020)는 튀니지 출생의 유대인 문학자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34 鈴木道彦, 「不服従の権利の記録」, 『日本読書新聞』 1181号, 1962. 11. 12.

한 알제리 전쟁에 관한 자료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조선 등에 관한 일본인의 책임의식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의 알제리였다”, “일본인 대다수는 지금도 역시 조선에 무관심하고, 또 조선에 대한 멸시 역시 뿌리 깊이 남아 있다. 중국에 대한 전쟁책임은 논의되지만, 조선에 대한 책임 묻기가 적은 것은 그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논하였다.³⁵ 여기서도 “민족의 책임”과 “전쟁책임”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지만, 식민주의 비판과 민족책임론이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즈키 미치히코는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의 1962년 11월 강연을 바탕으로 「민족의 책임에 대하여」(1963년 2월)를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메이지(明治) 이래 일본근대사는 늘 조선을 발판 삼아 조선의 희생 위에 성립되어 온 것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거의 조선에 대한 ‘주체적 침략’의 책임 묻기를 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책임은 논의되지만, 조선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시야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한일 교섭이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책임 부재의 일본 민족을 재고하는 것은 불가결한 요청이다.³⁶

35 鈴木道彦, 「不服従の権利の記録」. 한일 교섭을 둘러싼 일본 혁신세력의 반대운동에서는 동아시아 냉전에서 일·미·한이 연계하는 안보·군사동맹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고, 일본의 조선·한국에 대한 식민화·가해를 둘러싼 책임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당시 김달수(金達壽)가 「日朝外交の史的責任: 日韓會談の妥結氣運に際して日本の知識人に問う」(『現代の眼』1962년 11月号)를 통해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였고, 스즈키 미치히코는 「不服従の権利の記録」에서 이 김달수의 논고를 언급하며 그 비판과 문제제기를 수용하였다.

36 鈴木道彦, 「民族の責任について」, 『アジア・アフリカ通信』 12号, アジア・アフリカ作家会議日本協議会, 1963. 2., 2쪽. 이 논고는 평론집 『アンガージュマンの思想』에 「民族の責任1」로 수록되어 있다. 그 후 1965년 6월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12월에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비준이 성립될 때, 스즈키는 재차 민족책임을 논하는 「朝鮮に対する日本の民族責任: 区別こそ連帯の第一歩」(『一橋新聞』 787号, 1965. 12. 15.)를 발표하였고, 같은 평론집에 「民族の責任2」로 수록하였다. 또, 스즈키는 1965년 11월 27일에 개최된 국민문화회의의 주제 심포지엄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일한문제와 일본의 지식인) 토론에 참여하여 민족책임, 전후책임과 관련하여 발언하였다(『現代の眼』1966년 2월호 게재).

여기에서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민족책임을 구분하여 논하고 있지만, 스즈키도 말하듯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민족책임을 논의되어 왔다. 그 일례로서 다케우치 미노루(竹内美)의 「사명감과 굴욕감: 민족적 책임의 시점」(1960)이 있다.³⁷

스즈키 미치히코는 후에 “이 ‘민족책임’이라는 표현은 그제까지 주로 중국에 대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은 아닐까. 나의 관건에서는 당시 아직 조선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는 이는 비교적 적었고, 그것 역시 눈부신 논단이나 유력 출판사와는 인연이 없는 극히 소수파의 사상이었다고 본다.”³⁸라고 회상하였다.

여기서 스즈키가 염두에 둔 것은 후지시마 우다이(藤島宇内)와 다마키 모토이(玉城素)이다. 일본조선연구소의 멤버였던 후지시마 우다이는 『일본의 민족운동』(日本の民族運動, 弘文堂, 1960)을 간행하였고, 일본조선연구소의 멤버들이 집필한 공저 『도큐먼트 조선인: 일본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ドキュメント 朝鮮人: 日本現代史の暗い影, 日本読書新聞出版社, 1965)의 감수를 맡았다. 또, 다마키 모토이는 『민족적 책임의 사상: 일본민족의 조선인 체험』(民族的責任の思想: 日本民族の朝鮮人体験, 御茶の水書房, 1967)을 집필하며 한국에 대한 ‘민족적 책임론’의 논객이 되었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당시를 회상한 『월경의 때: 1960년대와 재일』에서 한국에 대한 민족문제, 민족책임을 논한 소수파로서 후지시마 우다이와 다마키 모토이의 이름을 들며, “게다가 그들은 모두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시종 집에 와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에 열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

37 竹内美의 「使命感と屈辱感: 民族的責任の視点」이 발표된 것은 앞에서 인용한 竹内好의 「戦争責任について」이 수록된 논집 『現代の発見 第3巻 戦争責任』(春秋社, 1960)이다. 그 후 『日本人にとっての中国像』(竹内美, 春秋社, 1966)에 재수록되었으며, 스즈키 미치히코는 이 책의 서평을 썼다(『文学』 1967년 4月号; 『アンガージュマンの思想』 수록). 또한 다케우치 미노루의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패전 후에 중국의 극작가 사옌(夏衍)이 일본 지배층의 중국침략을 제지할 수 없었던 일본 인민은 ‘민족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使命感と屈辱感』 초출, 162쪽). 사옌의 발언은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의 「中日新関係樹立の前提」(中国研究所 編, 『中国の日本論』, 潮流社, 1948, 59쪽)에 소개되어 있다.

38 鈴木道彦, 「或る私的回想」, 『季刊三千里』 21号, 1980. 2., 14쪽. 이 회상은 「“民族責任”をめぐって」로 개제(改題)되어 飯沼二郎 編, 『架橋: 私にとっての朝鮮』, 春秋社, 1984에 재수록되었다.

두 사람에게 배운 것은 나의 귀중한 양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³⁹

한편 다마키 모토이는 『민족적 책임의 사상』에서 스즈키 미치히코의 민족책임론에 대해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고, 「후기」에서는 “많은 사상적 자극”을 받은 스즈키 미치히코에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⁴⁰ 스즈키 미치히코와 다마키 모토이 등의 민족책임론(민족적 책임론)은 자극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어 갔음을 엿볼 수 있다.⁴¹

또, 후지시마 우다이가 감수한 『도큐먼트 조선인』은 주로 일본조선연구소 멤버들—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오자와 유사쿠(小沢有作) 등—이 집필하여 1963년 9월부터 1964년 11월에 『일본독서신문』에 연재한 후 한 권으로 묶은 것인데, 그 연재 중에 나온 광고에 “우리들 안의 ‘알제리’를 확인한다.”라는 표현이 있다.⁴² 스즈키 미치히코가 일본에 있어 알제리 문제로서 한국 문제를 논하기 시작한 시좌가 후지시마 우다이 등의 논의와 공명하고 있던 것의 흔적일 것이다.

이처럼 스즈키 미치히코는 1960년대 초중반에 걸쳐 알제리 전쟁의 충격을 받고, 한일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학 연구자들과 논의하고 또

39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23~24쪽.

40 玉城素, 『民族的責任の思想: 日本民族の朝鮮人体験』, 御茶の水書房, 1967, 351쪽.

41 玉城素, 『民族的責任の思想』의 제2장 「民族的責任の所在」에서는 ‘전쟁책임론’과 ‘민족적 책임론’을 구분한 후에 ‘민족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하나의 흐름은 다케우치 요시미, 다케우치 미노루 등을 중심으로 주로 중국침략에 대한 민족적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스즈키 미치히코, 나카하라 히로시(中原浩), 고마쓰 시게오(小松茂夫), 필자 자신 등이 발언해 온 조선민족에 대한 민족적 책임 추궁이었다. 이 중 후자의 조선민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중국책임론과 비교하여 극히 늦게 등장한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며, “일본에 있어 전통적인 중국 존중, 조선 멸시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36쪽). 또한, 『民族的責任の思想』에 수록된 논문 대다수는 『코리아評論』(코리아평론)에 발표되었다. 이 잡지의 발행자인 김삼규(金三奎, 1908~1989)는 『동아일보』 주필이었던 저널리스트로,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하여 『코리아評論』을 창간하였고, 민주화·남북통일·중립화를 지향하는 논조를 꾸렸다. 『言論人 金三奎』(同刊行委員会, 1989) 참조. 스즈키 미치히코도 「アルジェリア革命の現状: 民族主義と中立への志向」(『코리아評論』 1962년 2月号)을 기고하였다.

42 『思想の科学』 1963년 12月号, 1964년 1月号, 2月号, 3月号 지면에 게재된 일본독서신문(연재 「朝鮮人」)의 광고, 더불어 『ドキュメント 朝鮮人』의 제1장 「朝鮮人問題とは: 日本人としてどう考えるか」의 서두에서는 “일본에는 약 60만 명의 조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알제리인에 필적하는 인구다.”라는 서술이 있다(『ドキュメント 朝鮮人』, 日本読書新聞出版部, 1965, 10쪽). 일본에게 있어 (재일)조선인 문제를 생각할 때 프랑스의 알제리 문제가 참조를 위한 하나의 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민족책임론, 식민주의 비판을 생성하였다.⁴³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62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스즈키 미치히코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책임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의는 프랑츠 파농의 수용, 고마쓰가와 사건의 사형수 이진우에 대한 관심, 김희로의 재판투쟁 지원과 연관을 맺어 갔다.

스즈키가 「민족의 책임에 대하여」(1963년 2월)를 발표한 수개월 후, 박수남과 이진우의 왕복서간집 『죄와 죽음과 사랑』(1963년 5월)이 간행된다.⁴⁴ 1962년 11월 16일에 이진우의 사형이 집행된 지 반년 후이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이 서간에 담긴 이진우의 사고 궤적에 강한 감명을 받았고, 「부정의 민족주의」(1964년 4월)와 「일본의 주네」(1967년 2월)를 집필하였다.⁴⁵

박수남은 서간에서 ‘조국’과 ‘민족’을 긍정적으로 말하며 이진우를 조선 민족으로서의 자각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이진우는 이를 미묘하게 받아넘기면서 “나는 조선인인, 사형수이다.”⁴⁶라고 부정성과 더불어 민족을 말한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이렇게 엇갈리는 두 사람의 민족을 말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한국인을 차별하고 타자화하는 일본인의 민족책임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그것이 내재한 부정성과 함께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자 하였다.

43 일본조선연구소 멤버로 내재적 발전론을 탐구한 한국사연구자 가지무라 히데키의 학문·운동에도 민족적 책임론의 사상이 보인다. 山本興正, 「梶村秀樹における民族的責任の位相: ナショナリズムをめぐる議論を中心に」, 『コリアン・スタディーズ』 2号, 2014. 6.; 山本興正, 「金嬉老公判対策委員会における民族的責任の思想の生成と葛藤: 梶村秀樹の思想的関与を中心に」, 『在日朝鮮人史研究』 46号, 2016. 10.; 山本興正, 「戦後朝鮮史研究における「60年代の問題意識」の一断面: 「民族」と「日本人の責任」をめぐる梶村秀樹と旗田巍の思想的交錯」, 『歴史学研究』 1001号, 2020. 10. 참조.

44 朴寿南 編, 『罪と死と愛と: 獄窓に真実の瞳をみつめて』, 三一書房, 1963. 5. 사형 선고 후인 1961년 2월부터 사형집행 직전까지 박수남과 이진우가 교환한 왕복서간의 일부이며, 후에 『李珍宇全書簡集』(朴寿南 編, 新人物往来社, 1979)이 간행되며 그 진모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45 鈴木道彦, 「否定の民族主義」, 吉本隆明 編, 『現代日本思想大系4 ナショナリズム』(『月報』), 筑摩書房, 1964. 6.; 鈴木道彦, 「日本のジュネ: または他者化した民族」, 『新日本文学』 1967. 2. 둘 다 평론집 『アンガー・ジュマンの思想』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日本のジュネ」의 원형이 된 「悪の選択」은 스즈키의 히토쓰바시대학 세미나 학생들이 발행한 잡지 『バタアル』(바타아르) 창간호의 특집 「李珍宇の復権」(1966. 10.)에 기고되었고,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77~97쪽)에 그 전문이 재수록되었다.

46 1961년 9월 22일자 서간. 朴寿南 編, 『罪と死と愛と』, 79쪽.

그러한 관심은 파농의 수용과 폭력론으로 연결되어 간다. 프랑수앵 마르티니크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FNL의 알제리 독립투쟁에 가담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 된 파농은 알제리 독립 전야인 1961년 말에 세상을 떠났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주일 알제리공화국 임시정부 대표인 벤하비레스로부터 파농의 저서 『알제리 혁명 5년』(『혁명의 사회학』, 1960)을 받고 파농을 알게 되었다.⁴⁷

「피식민자의 사상」(1962년 5월)⁴⁸에서는 파농의 유작이 된 『대지의 저주 받은 사람들』(地に呪われたる者, 1961년 미간행)을 소개하면서 파농의 사상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3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4월에 프랑스의 국민투표로 알제리 독립이 어렵사리 지지를 받은 시기였다. 그 후 「검은 ‘개화민’과 폭력」(1968년 3월)을 썼고,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공역하였으며, 『프랑츠 파농 작품집』(フランツ・ファノン集, 1968년 12월)의 해설로 「다리를 내 것으로 삼는 사상」(橋をわがものにする思想)을 썼다.⁴⁹

파농의 사상은 식민주의를 내면화하고 주체를 상실한 피식민자(카리브해와 아프리카의 흑인들)가 주체를 회복해 가는 투쟁을 논한다. 파농 자신이 예전에 프랑스인(백인)을 동경하였고,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자기를 부정해 왔지만, 그 주박(呪縛)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고자 고투하였다. 그리고 한때는 경도되었던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와 레오폴 상고르(Léopold Senghor) 등의 네그리튀드 사상 역시 부정적으로 극복해 갔다. 유럽 식민자와 제3세계 피식민자의 넘어서기 어려운 단층에 다리를 놓고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전적 인간’(全的人間)의 획득을 지향하는 사상으로서, 스즈키 미치히코는 파

47 鈴木道彦, 『アンガージュマンの思想』, 389쪽;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44쪽; 鈴木道彦, 『私の1968年』, 21쪽.

48 鈴木道彦, 「被植民者の思想: 文献から見たアルジェリア戦争」, 『Books』 145号, 1962. 5. 또,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에 사르트르가 쓴 서문을 에비사카 다케시(海老坂武)와 공역하였다(「復讐されたヨーロッパ」, 『中央公論』 1962년 6月号).

49 鈴木道彦, 「黒い(開化民)と暴力」(초출은 『展望』 1968년 3月号, 『アンガージュマンの思想』 수록). 또, 『フランツ・ファノン集』(みすず書房, 1968년 12월 刊行) 중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에비사카 다케시·가토 하루히사(加藤晴久) 공역,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은 스즈키 미치히코·우라노 기누코(浦野衣子) 공역, 스즈키 미치히코의 「다리를 내 것으로 삼는 사상」은 『フランツ・ファノン集』의 전체 해설로 쓰여졌고, 『政治暴力と想像力』에 수록되었다.

농을 논하였다.

또, 그는 파농의 폭력론에 대해서도 식민주의 비판과 함께 논하였다. 식민지의 질서 그 자체가 폭력에 의해 성립하고, 피식민자는 그것에 저항하고 자기해방을 하기 위해 대항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항폭력 자체가 식민주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그 해방투쟁은 유럽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식민지 도시의 엘리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민중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해방으로 향한다. 알제리독립전쟁은 농촌과 산악지역 기반의 게릴라전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파농은 거기서 알제리 혁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스즈키 미치히코가 두 편의 본격적인 파농론을 쓴 1968년에는 김희로 사건과 파리의 5월 혁명이 일어났다. 「검은 ‘개화민’과 폭력」을 쓴 후 스즈키는 두 번째 프랑스 유학을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그 직전인 1968년 2월에 김희로 사건이 발생하였다. 폭력단원 등 두 명을 사살한 후 시즈오카현 스마타쿄(静岡県又峽) 온천의 여관에 인질을 잡아 두고 농성을 벌인 김희로는 텔레비전과 신문 취재를 받으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차별을 고발하였고 자신들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모욕한 경찰관에게 사죄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극적으로 현재화(顯在化)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배경으로서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의 책임을 반문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이 김희로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인의 민족책임을 논해 온 스즈키 미치히코 역시 이에 가담하였고, 농성 중인 김희로에게 보내는 호소문의 원안을 기초하였다.⁵⁰ 그 후 김희로가 체포되자 재판투쟁을 지원하는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의 멤버가 되었고, 오사와 신이치로(大沢真一郎), 가지무라 히데키 등과 함께 1975년까지 8년간 이어진 재판을 지원하였다. 이 모임이 지향한 것은 “그의 주장을 의미 있게 살리면서 법정을 통해 재일조선인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일본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50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155~157쪽.

었다.”⁵¹

이 위원회의 발족 직후인 1968년 3월 스즈키 미치히코는 일 년 예정으로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이 두 번째 유학을 시작한 직후 스즈키는 파리에서 5월 혁명을 경험한다. 그리고 『프랑츠 파농 작품집』의 해설 「다리를 내 것으로 삼는 사상」은 유학 중인 파리에서 같은 해 여름 집필하였다. 거기에 5월 혁명의 충격이 각인되어 있다.

‘5월 혁명’의 중심이 된 젊은 노동자·학생의 행동은 바로 서구사회의 부인(否認)에 뒷받침을 받았고, 부인의 바리케이드를 쌓아 서구문화의 전면적 독성(澆聖)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파농의 행동과 저서에서 압도적으로 울려오는 것이야말로 이 부인의 5월 근원에 있는 힘일 것이다. …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결론은 바로 서구에 대한 결별과 ‘전적 인간’의 창조를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파농은 제3세계 민중의 원망과 한탄, 가능성에 표현을 부여한 그 폭력론·인간론에 의해 서구적 보편주의·데모크라시·인간의 원리를 전율시켰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3세계뿐만 아니라 서구 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일 터이다.⁵²

스즈키 미치히코는 이처럼 ‘1968년’의 충격과 함께 파농을 논하였다. 그리고 그 파농론의 마지막 절에서는 김희로 사건을 논급한다. 스즈키는 김희로의 폭력은 제일조선인을 차별해 온 일본 사회의 폭력에 의해 막다른 곳에 몰린 끝에 폭발한 대항폭력이자, 상실한 주체 회복을 위한 시도라 보았다. 김희로의 ‘저항의 폭력’은 파농이 논한 해방의 폭력과 자기회복을 실천하는 것이며, 바로 이 ‘일본에 있어 제3세계의 폭력 즉 김희로’로부터 파농의 사

51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169쪽. 이 대책위원회는 『金嬉老公判対策委員会ニュース』 1~40号(1968~1976), 『金嬉老問題資料集』 全12冊(1969~1975), 同委員会 編, 『金嬉老の法廷陳述』, 三一書房, 1970 등을 발행하였다. 스즈키 미치히코도 종종 기고하였으며 무서명 문장을 공동 집필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52 鈴木道彦, 「橋をわがものにする思想」, 『政治暴力と想像力』, 160쪽.

상이 자아내는 가능성 중 하나가 제시된다.

이처럼 스즈키 미치히코는 파농과 김희로를 결부시키면서 일본인의 민족책임을 되묻는 실천으로서 김희로의 재판투쟁을 지원해 나갔다. 이는 1960년대에 생성되어 온 스즈키 미치히코의 민족책임론, 식민주의 비판이 '1968년'의 충격 속에서 도달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4. 나오며: 집단적으로 생성하는 지(知)와 실천

이상과 같이 1960년대의 쓰루미 슌스케와 스즈키 미치히코는 각각의 경로를 걸으며 식민주의 비판의 사상에 당도하였다. 쓰루미 슌스케는 베트남 반전과 아시아에 대한 가해를 논하는 과정에서, 1967년부터 1969년에 걸쳐 탈주병 김동희와 오무라 수용소에서 가석방된 임석균에게 촉발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사상·운동을 엮어 냈다. 한편 스즈키 미치히코는 1960년대 초부터 알제리 전쟁과 '장송 기관'의 활동, '121인 선언'에 큰 자극을 받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일 교섭이 진척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책임론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진우의 사상에 큰 관심을 갖고 김희로 사건과 5월 혁명이라는 '1968년'의 충격 속에서 식민주의 비판을 갈고 닦았다.

이처럼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의 식민주의 비판 사상은 각각의 문맥과 경로를 갖고 생성되었는데, 그 두 개의 경로는 김동희 지원과 미군 탈주병 지원 활동에서 교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쓰루미 슌스케, 이누마 지로 등 교토 베평련 멤버는 '교토 김동희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오무라 수용소 내에 있던 김동희를 지원하였다. 한편, 당시의 스즈키 미치히코 역시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세미나 학생들과 함께 '김동희·도쿄연락회의', '반전병사 김동희의 망명을 돕는 모임'에 참가하며 김동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스즈키는 "나에게는 네 명의 인트리피드호 탈주병보다도 한국 군대에서 탈주해 평화헌법에 의

탁하여 일본에 밀항한 김동희가 훨씬 더 무거운 존재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김동희·도쿄연락회의’ 활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미국 탈주병 원조 운동과의 접촉점에 대해 골몰하였다.”⁵³

베평련이 미국의 탈주병을 은밀히 지원하는 JATEC와는 별도로 자금 조성과 선전을 위해 1967년 가을 ‘인트리피드 4인의 모임’을 만들었을 때 스즈키 미치히코 역시 조력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프랑스 유학을 출발하는 1968년 3월까지라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⁵⁴ 스즈키는 이전부터 알제리 전쟁하의 프랑스인 탈주병들, 그들을 지원하는 조직적인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평련·‘인트리피드 4인의 모임’의 탈주병 지원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오다 마코토, 쓰루미 슌스케와 함께 『탈주병의 사상: 국가와 군대에의 반역』(1969년 6월)을 공동 편집하였고, 「내셔널리즘과 탈주」를 기고하였다.⁵⁵

스즈키 미치히코가 이렇게 ‘김동희·도쿄연락회의’ 참가를 이어 가며 ‘인트리피드 4인의 모임’에 참가했을 무렵 히토쓰바시대학 세미나 학생들과 함께 ‘인트리피드에서 김동희로’라는 테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1967년 12월 12일). 거기에 무토 이치요(武藤一羊), 다마키 모토이, 니시 준조(西順藏)가 패널로 참가하였다.⁵⁶

이처럼 한국군 탈주병 김동희와 미군 탈주병들의 지원운동을 통해 교토와 도쿄에서 호응·연계하며 쓰루미 슌스케와 스즈키 미치히코의 활동은 교

53 鈴木道彦, 「あとがき」, 『政治暴力と想像力』, 290~291쪽. 「「有志」と「暴徒」と亡命: 「イントレピッド4人」の会への参加にあたって」(鈴木道彦, 『社会新報』 1090号, 1968. 1. 1.)에서는 김동희를 지원하고 ‘망명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54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144쪽.

55 鈴木道彦, 「ナショナリズムと脱走」, 小田実·鈴木道彦·鶴見俊輔 編, 『脱走兵の思想』 수록, 『政治暴力と想像力』 재수록.

56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147쪽. 또, 한 해 앞선 1966년 11월 3일에도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세미나 학생들과 함께 ‘이진우의 복권’을 테마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패널로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다케우치 요시로(竹内芳郎), 다마키 모토이, 박수남이 참가하였다(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76쪽). 1960년대 초중반, 민족책임론이 생성되어 갈 때 상호 자극을 주고받던 스즈키 미치히코와 다마키 모토이의 연계가 1960년대 후반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66년의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民族的責任の思想』(玉城素, 249쪽)에도 언급되어 있다. 더불어, 조선에 대한 민족적 책임론 논객이었던 다마키 모토이는 그 후에 입장을 바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비판하는 우파 논객이 된다.

차하였던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1968년을 맞이하였고 김희로 사건, 5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 후에 이어지는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한 것은 오사와 신이치로이다. 오사와는 그 전후에 다양한 활동을 잇는 핵심 인물이자 훌륭한 기획자였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 발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회합에 대해 “이 회합의 실현은 만사 껴놓고 조직책으로 움직인 오사와 신이치로의 공적이었다. 그는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郎) 밑에서 국민문화회의의 사무국을 지탱해 온 인물인데, 특히 60년대를 특징짓는 한일조약과 베트남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 한일 문제와 베트남 전쟁이 오사와 신이치로라는 점점으로 묶였고, 언뜻 뿔뿔이 흩어져 있는 듯한 이들의 회합을 실현시켰던 것이다.”라고 하였다.⁵⁷

오사와 신이치로는 후에 교토세이카대학(京都精華大学)에 근무하였고, 이누마 지로, 쓰루미 슌스케 등의 잡지 『조선인: 오무라 수용소를 폐지하기 위하여』에 매호 게재되는 좌담회에 이누마, 쓰루미, 오노 노부유키(小野誠之, 변호사)와 함께 단골 논객으로 참가하였다(9호 1973년 5월부터 27호 1991년 5월까지). 그는 1960년대부터 사상의과학연구소와 신일본문화회에 참가하며 종종 잡지에 기고하였으며,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와 접점이 있었다.⁵⁸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 주위에는 오사와 신이치로처럼 사람들을 잇고 ‘집단’을 움직이는 유·무명의 기획자가 있었기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성되었고 자립적인 언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57 鈴木道彦, 『越境の時: 1960年代と在日』, 168~169쪽. 스즈키 미치히코는 여기서 그가 참가한 심포지움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現代の眼』1966년 2월호 게재)을 기획하고 당일 사회를 담당하였던 것 역시 오사와 신이치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58 오사와 신이치로(大沢真一郎, 1937~2013)는 1960년대 초에는 규슈 치쿠호(九州·筑豊)의 다이쇼탄광(大正炭坑)에서 다니가와 간(谷川雁)이 실업광부들과 더불어 활동하였던 ‘다이쇼 투쟁’(大正闘争)의 근거지 만들기를 지원하는 〈후방의 모임〉(後方の会, 1961년 10월 발족) 멤버였다. 그리고 1960년대 말까지 국민문화회의 사무국에 근무하였고, 전국 각지의 서클문화운동을 연결하는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의 조직자가 되었다. 저서로 『後方の思想: あるいは長征への出発』(社会評論社, 1971), 『遊撃の思想: 長征の途上にて』(行路社, 2000) 등이 있고, 思想の科学研究会 編의 『共同研究 集団: サークルの戦後思想史』(平凡社, 1976)에도 참여하였다.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에 의한 식민주의 비판의 사상·운동은 이처럼 사람들의 연계, 네트워크 속에서 집단적으로 생성된 지(知)와 실천이었던 것이다.⁵⁹

부기(付記)

편집부로부터 이번 기고를 의뢰받았을 때의 테마는 근대 일본에 있어 자유주의 지식인의 조선·한국 인식을 전전에서 전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되짚어 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초 전전에 대해서는 조선의 민족자결 요구와 마주했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등을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 전후의 쓰루미 슌스케, 스즈키 미치히코까지 그 계보를 파악해 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전전부터 전후에 걸쳐 이들 자유주의 지식인의 계보를 찾는 작업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전전에는 제국 일본의 지식인에게 조선과 타이완의 탈식민화 문제가 마주해야 할 커다란 난문으로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온전히 전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포츠담 선언 수락과 미국에 의한 점령,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의 충격이 단절을 초래하였다.

포츠담 선언 수락과 미국 점령에 의해 식민지 제국의 해체와 전후 일본으로의 이행이 '타율적'으로 이뤄졌고, 아시아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식민주의를 되묻는 과제는 한국·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뒤로 미뤄졌다. 전전부터의 자유주의 계보를 잇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등의 전후 지식인에게 탈

59 이러한 언론의 장 생성에 있어서는 임석균과 김삼규 등 전전부터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고 전후에 밀항·도일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스스로 번역을 하였고, 비판적인 언론의 장 생성을 촉발시켰다. 전후 일본의 사상사·문화사는 미디어, 언어, 문장가와 독자 등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宋惠媛, 「移動者たちの「在日朝鮮人文学」: 「密航」と収容所, そしてアメリカ」, 坪井秀人 編, 『戦後日本の傷跡』, 臨川書店, 2022는 윤자원, 이희성, 김동희 등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온 밀항자들이 쓴 작품과 편지, 일기 등에 주목함으로써 '재일조선인문학'의 범주를 재검토하고 있다.

식민화 문제는 큰 과제가 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의 충격에서, 탈식민화의 문제, 식민주의 비판의 과제가 1960년대에 스즈키 미치히코와 쓰루미 슌스케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것은 전전부터 이어지는 자유주의 계보의 연속적인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미국 유학 경험을 지닌 쓰루미 슌스케는 베트남 전쟁의 충격을 받으면서 미일 정부의 공범 관계에 의한 아시아·한국에 대한 가해를 논하게 되었다. 스즈키 미치히코는 유학하던 프랑스에서 알제리 전쟁의 충격을 받고 식민주의 비판, 아시아·한국에 대한 가해 책임을 논하게 되었다.

이번에 전전부터 전후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의 계보를 논하는 것은 단념하고, 전후·1960년대로 초점을 좁혀 논하였는데, 그것 자체가 탈식민화의 문제, 식민주의 비판의 과제를 둘러싸고 전전·전후의 사상 계보 찾기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 본고에서 전전의 자유주의자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지만, 요시노 사쿠조와 야나이하라 다다오에 대해서는 줄저 『アジア/日本』(岩波書店, 2006, 한국어판: 조은미 옮김, 『아시아 일본: 사이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조수일(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재일조선인문학·일본전후문학 전공)에 의해 번역되었다.